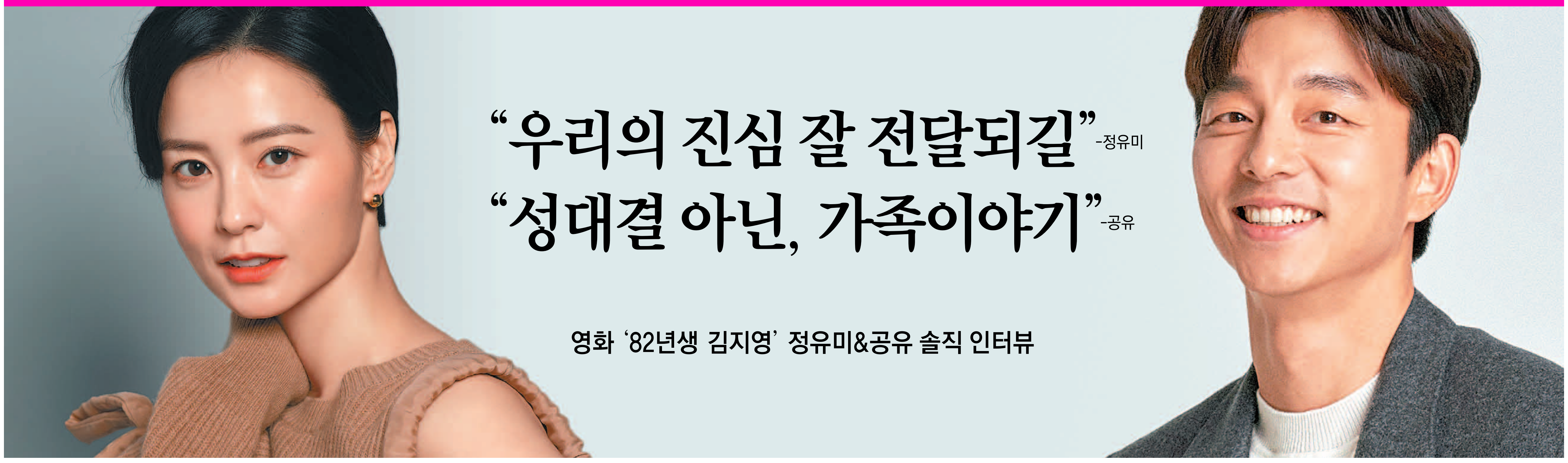
플래시백 〈1999년 10월 21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속에서도 한일 문화교류는 꾸준하다. 한 해 전 9월 한국이 일본 대중문화에 문호를 연 뒤 도쿄 아카사카의 블리츠홀에서 한국 대중가요 콘서트가 열렸다. 가수 엄정화와 박미경, 그룹 클론과 원타임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나섰다. 1800여 관객이 환호했다.



"우리의 진심 잘 전달되길"-정유미
"성대결 아닌, 가족이야기"-공유

영화 '82년생 김지영' 정유미&공유 솔직 인터뷰

배우 정유미(왼쪽)와 공유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영화화하며 주연으로 나서 원작과는 또 다른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섰다. 사진제공 | 매니지먼트 숲

진심이 관객의 마음에 가 닿을까. 배우 공유(40)와 정유미(36)가 23일 영화 '82년생 김지영'(감독 김도영·제작 영화사봄바람)을 내놓는다. 1982년 태어나 성장한 김지영의 '평범한' 삶을 통해 여성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편견과 차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영화다. 조남주 작가가 2016년 10월 펴낸 이후 현재까지 120만부가 팔린 동명 소설을 원작 삼았다. 원작은 당대 여성의 내밀한 문제를 수면에 끌어올려 페미니즘 이슈를 촉발해 주목받았지만, 한편으론 '72년생도 아닌 82년생이 성차별을 당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부딪혀 있다. 일부는 영화와 두 주연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공격도 일삼는다. 16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공유와 정유미는 "다양한 시각과 반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유미는 한동안 '김지영'이란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릴 것 같다. 원작소설을 지지한 독자들이 상상한 김지영을 생동하는 인물로 그려내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비로소 대표작을 얻은 셈이다.

영화는 비단 1982년 무렵 태어난 여성들의 이야기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보다 윗세대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지, 성장해 가정을 이룬 이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아우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도 이런 영화는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시대와 맞닿은 부분이 있고, 지금쯤 한 번 찬찬히 짚고 넘어갈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해요. '아~', 숨고르기 할 시간이랄까. 촬영하는 틈틈이 김지영의 감정이 더 궁금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마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찾아 읽었어요."

영화는 여성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고 느껴봄직한 일들을 김지영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차분하게 그려간다.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엄마이고 며느리인 김지영의 학창시절부터 직장생활, 결혼 뒤 시댁과 친정에서 겪는 일들을 담담히 살핀다. 특히 어린 딸을 돌보면서 복직을 바라는 김지영의 모습은 단지 '경력단절 여성'이란 자극적인 단어로 대변할 수 없는,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파고들어 뭉클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정유미는 "김지영처럼 힘든 일들을 겪지 않았지만 주변을 살피고 이야기를 들으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김지영처럼 차츰 용기를 내며 나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연 결정 순간부터 일부 악의적인 누리꾼의 공격을 받았다. 소설의 영화화와 정유미의 출연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혐오성 짙은 악성 댓글이 넘친다. 정유미는 덤덤했다. "이미 배를 탔고, 배가 출발했고, 가야 할 곳으로 간다는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우리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길" 바랄 뿐이다.

"어떤 작품에 참여하든 마음은 똑같아요. 혹시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고 포기하거나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좋은 영화로 소통하고 싶을 뿐이에요. 영화는 즐기는 거잖아요.(웃음) 부디 영화를 통해 싸우지 않길, 스트레스도 받지 않기를. 하하!"

영화를 찍고 정유미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요즘은 엄마에게 보내는 문자에도 하트 이모티콘 하나 더 붙인다"는 그는 바쁜 일정이 끝나면 오랜만에 부산 고향집에도 찾아갈 참이다.

정유미의 다음 작품은 역시 소설을 원작 삼은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이다. 활자 속 캐릭터가 그를 통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됐다.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쯤은 경험으로 알죠. 그래도 연기를 하는 이상,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고민할 거예요."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햇수로 3년 만이다. 드라마 '도깨비'로 신드롬의 주인공이 됐지만 뜻밖에 한동안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영화계 안팎에서 '지나치게 심사숙고 한다'는 말이 흘러나올 무렵, 배우 공유가 손에 쥔 작품은 화제와 논쟁을 동반한 '82년생 김지영'이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정작 공유의 답은 담백하다. "마음을 건드린 이야기"라고 했다. 주변의 시선과 우려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나리오를 읽고 가족이 먼저 떠올랐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성별로만 구분 지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가족, 다른 시대에서 자식을 키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관계에서 입은 상처와 그걸 극복하고 위로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유는 김지영의 남편인 정대현을 연기했다. 소설에선 다소 무심하게 그려지지만 영화에서는 좀 더 섬세하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 빙의된 듯 행동하는 아내로 인해 애를 태우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 남몰래 정신과 상담도 받는다. 아내의 편이 되어 주려 하지만 방법을 몰라 난감해하는 모습은 따뜻하고 인간미 넘친다. 영화는 그런 공유를 통해 원작의 가치를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까지 전한다.

공유는 개인의 취향도 영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상상의 일보다 현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좋아한다"는 그는 "'82년생 김지영'은 자극적이지 않은 소소한 일상의 일들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고 했다. 밤새 영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듯, 이번 작품에 쏟는 애정이 각별해 보였다.

"예전에는 타협하고 양보한 적도 있고, 원하지 않은 이야기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자유로워지는 기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구나 싶어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요."

공유는 대중의 시선을 받는 배우로 살아가지만, 동시대 고민을 나누는 사회인으로서도 더불어 숨쉬고 있다. "드라마 속 모습은 제가 아니라 캐릭터잖아요. 저의 생활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보통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의 (화려한)이미지가 이번 영화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은 했죠. 스스로 경계하고 감독님께 때때로 반문했습니다."

영화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공유는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돌이켰다. 결혼과 육아 문제도 그렇다. 그 역시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일을 막연하게 생각해왔지만 점차 현실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고민으로 확장 중이다. 공유는 "내 아이가 살아갈 다음 세상을 생각하면 결혼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다"며 "정말이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웃어보였다.

"냉소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저는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꿀 순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지속하느냐 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건네고, 함께 공감하고 싶어요."

이해리 기자

TV 프로그램·오늘의 운세 21일 (월)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000 MBC 02-780-0015 SBS 02-2113-5000 (재)재방송 [D]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채널 A	KBS1	KBS2	MBC	SBS
4:00 채널A 스페셜 〈마음으로 보는 세상〉[D] 6:00 특별기획 〈당신을 살찌게 하는 비만세균을 잡아라〉(재) 7:00 은비랑 꼼지락 꼼지락(재) 8:00 행복한 아침 9:20 김진의 돌직구 쇼 10:50 뉴스A 라이브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걸어서 세계 속으로[D](재)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0 무한리필 샐러드⑫(재) 6:00 걸어서 세계 속으로[D](재)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아침 뉴스타임 9:00 일일연속극-여름아 부탁해⑮(재) 9:40 무한리필 샐러드⑫ 10:40 지구촌 뉴스 11:00 월화드라마-조선 로코 녹두전[D]⑮(재)	5:00 UHD세상탐험(재) 6:00 뉴스투데이〈1, 2부〉 7:50 일일드라마-모두 다 쿵따리⑮ 8:30 생방송 오늘 아침⑮ 9:30 930뉴스 9:45 기분 좋은 날⑫ 10:45 UHD특선 드라마-W⑮	5:00 SBS특선 다큐멘터리 6:00 모닝와이드〈1, 2, 3부〉 8:35 아침연속극-수상한 장모⑮ 9:10 좋은 아침⑫ 10: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00 사건 상황실 1:20 역사 다시보기 천일야사[D]⑮(재) 2:50 보컬플레이: 학교 대표 탐색전 무대 다시보기⑮ 4:20 정치데스크 5:50 뉴스 톱10	12:00 뉴스12 1:00 네트워크 기획-문화산책 1:50 KBS재난방송센터(재) 2:00 뉴스 2:10 다큐 공감(재) 3: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4:00 사사건건 5:00 뉴스5 5:30 동물의 왕국[D]	1: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D]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00 뉴스타임 3:1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유치원 4:00 무한리필 샐러드⑫(재) 5:00 썸바이벌 1+1⑮(재)	12:00 12뉴스 12:2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D]⑮ 1:20 헬로키즈 동물교실2(재)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D] 3: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20 일일드라마-모두 다 쿵따리⑮(재) 5:00 5뉴스 5:25 주말특별기획-황금정원[D]⑮(재)	12:00 12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⑮(재) 2:00 뉴스 브리핑 4:00 생활의 달인[D](재) 5:00 SBS오뉴스
7:30 뉴스A 8:40 서민갑부[D](재) 9:50 침묵예능 아이콘택트⑮ 채널A 다시보기 www.iChannelA.com 11:20 풍문으로 들었쇼⑮ ※1:00 2019 슈퍼레이스 매거진	6:00 6시 내고향 7:00 뉴스7 7:40 우리말 겨루기 8:30 일일연속극-여름아 부탁해⑮ 9:00 KBS뉴스9 10:00 가요무대 11:00 더 라이브 11:40 저널리즘 토크쇼J(재) 12:35 뉴스 12:45 이웃집 찰스[D](재) ※1:35 생활의 발견[D]	6:00 KBS경제타임 6:30 2TV생생정보 7:50 일일드라마-태양의 계절⑮ 8:30 글로벌24 8:55 옥탑방의 문제아들⑮ 10:00 월화드라마-조선로코 녹두전⑮ 11:10 다큐멘터리 3일(재) 12:10 스포츠 하이라이트 12:35 영상앨범 산(재) ※1:05 KBS재난방송센터(재)	6:25 생방송 오늘 저녁 7:30 MBC뉴스데스크 8:55 스트레이트 9: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⑮ 11:20 앙코르 MBC스페셜 12:20 스포츠 다이어리 12:35 낭만클럽⑫ ※1:35 UHD영상 스페셜〈산책〉	6:00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D]⑫(재) 7:00 생방송 투데이 8:00 8뉴스 8:55 생활의 달인〈1, 2부〉 10:0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⑮ 12:00 나이트라인 12:30 스포츠 투나잇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0월 21일(월) 음력: 9월 23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소 행운색:적색	호랑이 행운색:적색	토끼 행운색:검정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쓰이고 풍파가 있을 수 있다. 인생은 강물과 같다. 때론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몸을 맡기는 지혜도 필요하다. 길방:서	의욕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아라. 머리를 써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하는 날이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길방:남	뜻을 이루기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고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근신하라. 정의를 관철해 나아가며 기반을 굳게 닦아라.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의외의 금전수익이 있는 날이다. 길방:남	운세는 좋다.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자중지란을 조심해라. 우왕좌왕하기 쉽고 엉뚱한 짓을 하기 쉽다. 한 가지 일에 매진 못하고 이것 저것 손대는 날이다.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뱀 행운색:노랑**	**말 행운색:청색**	**양 행운색:적색**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하지만 오늘은 육해살 일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면서 지름길을 찾고 싶은 날이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길방:남	토끼는 습한 나무를, 뱀은 불을 의미한다. 젖은 나무로 불을 피우려한다. 장애가 많은 날이다. 인간관계에서의 마찰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길방:중앙	토끼는 바람을, 말은 불을 의미한다. 풍화의 날이다. 매사에 급히 서두르다 실패할 수 있다. 또 도화의 날이다. 이성문제, 탈선을 조심하라. 반복적인 일로 피곤한 날이기도 하다. 길방:동	양띠 생이 토끼를 만나면 처음에는 좋으나 중도에 항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이유는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르익은 기운을 바탕으로 결실의 탑을 쌓는다.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노랑	**닭 행운색:검정**	**개 행운색:적색**	**돼지 행운색:청색**
원숭이띠는 혈기왕성해 뭔가 시작하려는데 토끼는 가로막는 형상이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고 시기를 기다리며 건강에 신경을 써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길방:중앙	재살일이다. 닭과 토끼는 부딪친다. 갈등이나 번민이 많은 날이다.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은 흉한 날이며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은 길한 날이 된다. 길방:북	토끼는 도화로서 자신의 능력을 포장하려는 기운인 반면, 개는 화개로서 자신의 재능을 가리고 덮으려는 기운이다. 속이 시끄럽다. 음악이나 영화감상 등을 통한 휴식이 도움 되겠다. 길방:남	돼지는 지살로서 움직이려는 기질이 강한데 토끼 낱은 힘을 보태주는 형상이다. 의욕은 충만하고 자신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이다. 변화를 계획했다면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 길방:동

아놀드 슈워제너거·린다 해밀턴 등 영화 '터미네이터' 출연진 한국 찾아

'터미네이터가 돌아온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역 아놀드 슈워제너거와 린다 해밀턴이 한국 관객을 만난다. 이들이 새롭게 나선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의 30일 개봉에 앞서 21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내한 기자회견을 연다. 연출자 팀 밀러 감독 등과 함께 한국을 찾는 이들은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레드카펫 행사도 펼친다.

아놀드 슈워제너거와 린다 해밀턴은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신작 '다크 페이트'에서 심판의 날 이후 미래에서 온 슈퍼 솔저 그레이스와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터미네이터가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다. 두 사람은 1984년 1편과 1991년 2편의 주연으로 활약했다.